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3. 5. 18 (목)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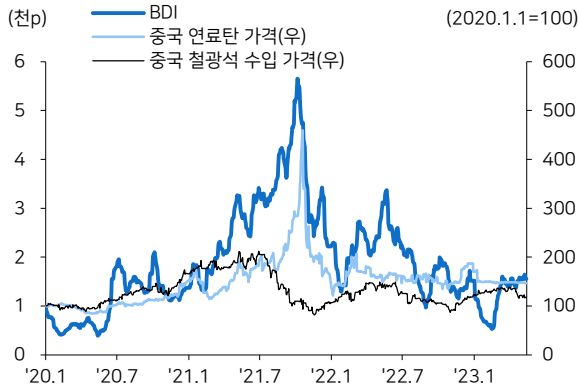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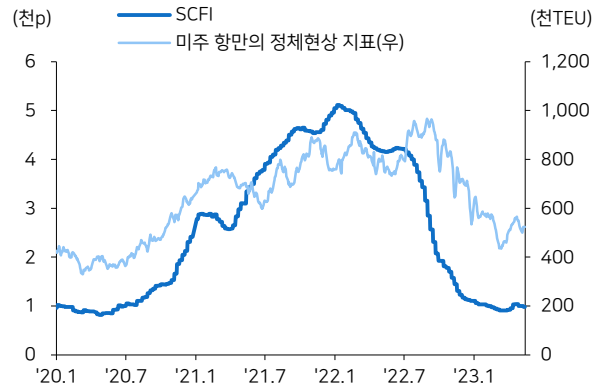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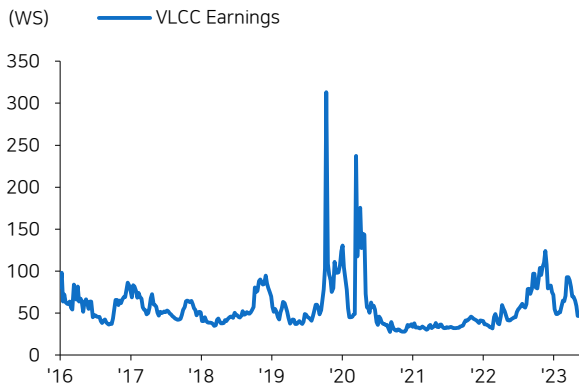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425.0p(-5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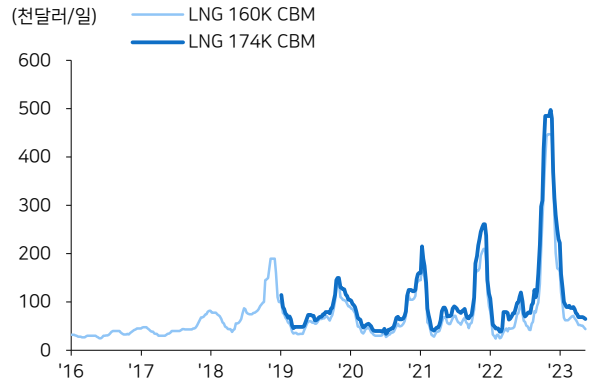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83.4p(-14.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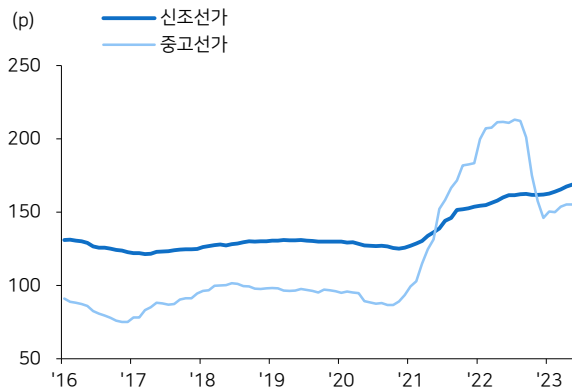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6.5p(+0.1p WoW)



LNG Spot 운임 44.0천달러(-3.8천달러 WoW)
65.0천달러(-2.3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8.6p(+0.5p WoW)
155.2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94.0달러(-37.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QatarEnergy wraps up shipyard talks for Phase 2 of giant newbuilding project

QatarEnergy가 LNG선 40척, 90억달러 상당의 발주 프로젝트 2단계와 관련해 조선소들과 논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도됨. 선가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오갔는데, 처음 슬롯을 예약한 2020년에는 척당 2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2.15억달러였고, 최근에는 2.6억달러 이상으로 언급됨. 삼성중공업 16개, 대우조선해양 12개, 현대중공업에 10개, 중국 조선소에 6~8개 슬롯이 예약되어 있다고 알려짐. 2023년 3~4분기 중 선주들과 조선소를 짝지어 발주가 이뤄질 전망으로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Yhuwe>)

흑해곡물협정 중단 위기 모면...에르도안 "2개월 연장 합의"

흑해곡물협정이 중단 하루 전 가까스로 2개월 연장됐다고 보도됨. 협정 연장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튀르키예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려가 일정 형태로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됨. 러시아는 자국산 농산물과 비료 수출을 보장한 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지 않을 경우 협정을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https://t.ly/pnhG>)

Yang Ming opts for South Korea's Hyundai Heavy as China spooks shipowners

대만 Yang Ming이 현대중공업에 15,000TEU급 LNG DF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보도됨.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Yangjiang Shipbuilding 대신 한국 조선소를 택했다고 알려짐. 지난해, Yang Ming은 이사회로부터 발주 승인을 받았고, 조선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짐. 계약금액은 8.50억~9.75억달러에 달할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https://t.ly/pYdv>)

South Korea's Samsung Heavy enlists China's reborn Hengli for Evergreen newbuildings

삼성중공업이 중국 Hengli Heavy Industries와 협력해 인력난을 극복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도됨. Hengli는 Evergreen Marine이 발주한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의 hull block을 건조할 예정임. 삼성중공업은 2021년에 수주했고, 2023~25년 사이 인도될 예정임. 삼성중공업이 외주를 맡긴 두번째 중국 조선소로 언급됨. (Tradewinds) (<https://t.ly/X5R5>)

Bimco tips more than 15,000 ships to be torched by 2032

Bimco에 따르면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5,000척 이상의 노후선박이 향후 10년간 폐선될 수 있다고 보도됨. 약 6억톤으로 지난 10년간의 폐선량의 두배에 달한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t.ly/B9dQ>)

납기 먼 LNG선도 용선주들에 인기

납기가 아직 한참 남아있는 LNG선들도 용선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됨. 일본 무역업체인 JERA는 Capital Gas로부터 LNG선 최소 2척을 용선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선박 납기는 2024~25년이고, 용선료는 일일 105,000달러로 알려짐. (선박뉴스)

(<https://t.ly/Lsh->)